

치차 음악: 리마와 안데스의 만남

서지현

들어가는 말

페루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상당수는 아마도 옛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쿠스코(Cuzco)와 마추픽추(Machu Picchu)를 최종 목적지로 삼을 것이다. 얼마 전 머나먼 중남미를 한국 대중에게 한 층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어느 TV프로그램 역시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마추픽추로 정했다. 그 여정의 출발지는 단연, 페루의 수도인 리마, 그 중에서도 해안가에 자리한 부유한 지역인 미라플로레스(Miraflores)였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이 쿠스코로 이동하기 전 리마의 미라플로레스에 머물기 때문에 지역은 특히나 이국적이다. 이곳에서 곧장 안데스 고산지대로 이동한 관광객이라면 아마도 풍요롭고 발전한 수도 리마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안데스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고산지대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가지고 페루를 떠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은 비단 일시적으로 페루에 머문 여행객만이 가지게 되는 선입견은 아닌 듯하다. 페루인에게도 리마를 중심으로 한 해안지대 도시와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만큼이나 역사·사회적으로 깊게 뿌리박혀 있으며, 이를 페루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거리는 비단 해안지대와 안데스 고산지대와 같은 공간적 단절을 통해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리마에서 관찰되는 안데스적 요소(lo andes)를 역사·사회적으로 고찰하여 페루 문화 이해에서 지리·사회적인 이분법적 인식(즉, 해안지대의 유럽적 요소와 고산지대의 안데스적 요소)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리마라는 도시 공간으로 안데스적 요소의 유입이 이뤄진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 다양한 문화의 교차와 혼합(mestizaje)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치차(chicha) 음악의 형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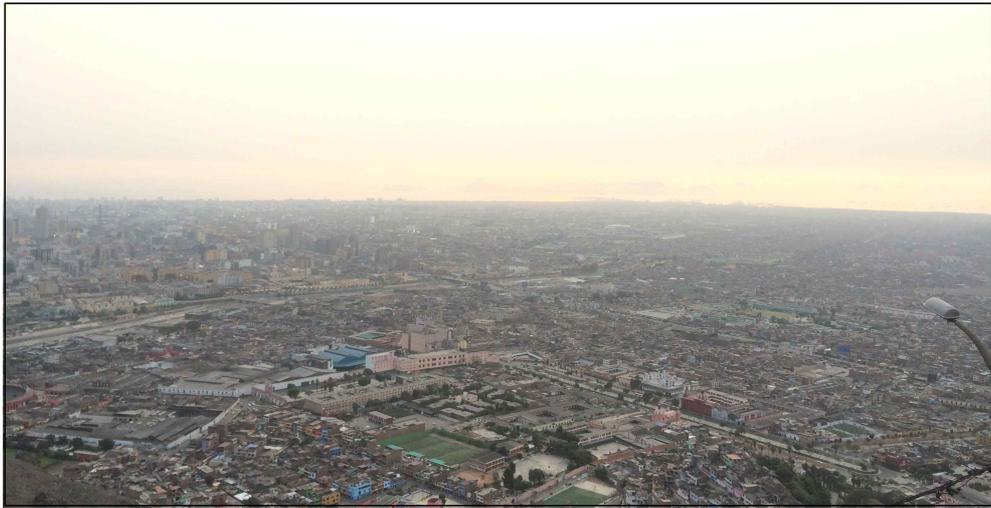


페루 지도. 노란색이 해안지대이고, 옅은 갈색이 안데스 산맥으로 형성된 고산지대이며, 초록색은 아마존 분지이다.

인구 범람: 리마와 안데스의 만남

리마를 방문할 때마다 필자가 빠뜨리지 않고 찾는 곳이 있다. 물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미라플로레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미라플로레스의 화려한 일면이 아닌 또 다른 리마를 보고 싶을 때 찾는 곳이다. 미라플로레스가 위치한 신시가지가 아닌 역사 지구가 위치한 리마의 구시가지에서 버스를 타고, 20여 분정도 이동하면 산 크리스토팔 언덕에¹⁾ 도착하게 된다. 사실 치안 상의 문제로 신시가지보다 관광객에게

1) 산 크리스토팔(San Cristóbal) 언덕은 리마를 관통하고 있는 리막 구와 산 후안 데 루리간 초 구 사이에 위치한 해발 약 400m의 언덕으로, 리마에서 가장 높은 자연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초리요스 구부터 카야오 지역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언덕 주변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범죄의 온상지로 관광객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후지모리 정부(1990-2000)에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벌인 결과, 현재는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접근



산 크리스토팔 언덕에서 내려다 본 리마 시가지(필자 사진)

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리마 전체를 이곳 전망대만큼 리마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리마는 미라플로레스에서 보는 리마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아름다운 해안과 화려한 건물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진 관광도시의 모습이 아니다. 이 언덕에 위치한 전망대는 마치 관광객을 위한 섬처럼 느껴진다. 언덕으로 올라오는 내내 지나쳐 온 언덕과 주변의 빈민가, 마침내 버스에서 내리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무장 경찰, 그 와중에 기념 촬영을 하는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전망대와 주변지역이 마치 섬과 바다처럼 단절된 공간이라는 착각이 들곤 한다. 한번은 필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잠시 전망대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관광객에게 물건을 팔고 있던 상인 아주머니가 필사적으로 말리셨다. 이유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전에 어떤 관광객이 잠시 전망대 아래로 내려갔다가 알몸으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전망대 위에서 리마를 바라다보는 데, 시 전체가 온통 황토색의 모래 빛이다. 겨울에 찾았을 때는 흐린 날씨 탓이었거니 했는데,

이 가능해졌다.

신시가지에서 한여름 해안의 푸름과 주변 공원의 색에 한껏 고취되었던 터라 녹색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도시의 경관은 한눈에도 이 페루의 수도가 사막 위에 건설되었음을 눈치 챌 수 있었다. 또한 해질녘 도시 곳곳에서 하나 둘 밝혀지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전체 페루 인구의 1/3 가량이²⁾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의 빈부 격차가 너무 확연히 보이는 듯해서 마치 페루 전체의 축소판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언덕 근처와 같은 도시 빈민가부터, 저 멀리 보이는 해안가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까지 산 크리스토팔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리마는 그야말로 사상누각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렇다면 사막이라는 절대적인 불리한 자연환경에서 건설된 이 도시가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거주할 만큼 규모가 커진 배경은 무엇일까? 또 리마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경제적 격차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안데스적인 것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중반 페루의 자본주의 발전과 안데스 지역 주민의 리마 이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1940년 페루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했으나, 이후 도시화가 거듭 진행되어 오늘날은 전체 인구의 약 7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도 리마에 페루 전체 인구의 1/3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리마 인구의 약 60% 이상이 빈민가에 살고 있다(Burt 2006, 223). 20세기 중반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 특히 상당수의 안데스 고산지대의 주민이 리마를 포함한 해안 도시로 이주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페루의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관계가 있다.³⁾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페루 정부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 통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반농업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도시 산업노동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 중산층의 구매력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농업 생산자의 삶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⁴⁾ 결과

2) 페루 전체 인구 약 3,000만 명 중, 850만 명(전체 인구의 약 28%) 가량이 리마에 거주하고 있다.

3) 공간의 제약 상 페루 자본주의 발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Cotler 1978 참고.

4)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Kay 1982 참고.

적으로 20세기 중반 경,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고산지대 농촌 주민이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찾아 근처 도시로, 혹은 해안에 위치한 대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버트에 따르면, 1940년 50만 명을 약간 상회하던 리마 인구가 1961년 즈음되면, 거의 4배가 증가한 약 184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Burt 2006, 225). 이러한 급격한 이주 현상을 두고 마토스 마르는 인구 범람(desborde popular)이라고 표현했다(Matos Mar 1984). 하지만 당시 리마는 이렇게 범람하는 인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초기 고산 지대에서 이주한 주민은 리마 중심부에 위치한 빈민가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빈민가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이주민은 주로 정부 소유의 유휴지를 중심으로 토지를 점거하기 시작했다.⁵⁾ 이렇게 해서 형성된 도시 빈민 정착촌(barriada 혹은 pueblo joven)으로 인해 리마의 전통적인 지리적 경계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들 이주민의 경우 도시의 산업 노동력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서비스업이나 가족 단위의 수공예품 제조에 종사했다(Cotler 1994, 44).

한편,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주요 정치 행위자로 등장한 원주민 운동을 분석하면서 알보는 페루의 원주민 운동이 다른 안데스 국가인 볼리비아나 에콰도르에 비해 약한 이유를 비교 분석했다(Albo 2004). 그 원인 중 하나로 페루 인류학자인 데그레고리의 지적을 인용하였는데(Degregori 1998), 이는 인구 범람의 성격과 관계가 깊다. 이를테면,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나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의 경우, 이주의 출발점으로 부터 가까이 위치하며, 라파스와 키토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이마라어나 케추아어를 사용하기에 원주민 조직과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리마의 경우 이주민의 출발지인 안데스 고산지대로부터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음은 물론, 이주 후에 낯선 도시에 살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Albo 2004, 33). 하지만 이것이 리마에 정착한 이주민이 이전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도시의 크리오요 정체성을 받아들

5) 사유지의 경우, 토지 점거 시 강제 진압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주로 정부 소유지를 중심으로 토지 점거가 이루어졌다(Burt 2006, 225).



치차 음료(출처: www.youtube.com)

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틀리가 지적하듯이, 리마에 정착한 이주민은 여전히 안데스의 농촌 지역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지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일부 가족이 도시에 먼저 정착한 이후 또 다른 가족이나 친지가 후속적으로 도시로 이주해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체성, 관습, 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Cotler 1994, 44).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안데스적 요소의 도시화(말을 바꿔서, 농촌의 도시화 또는 고산지대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고산지대의 안데스적 요소와 리마의 크리오요적 요소의 만남, 즉 사회·문화적 혼합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마의 많은 라디오 방송국이 프로그램의 상당 시간을 고산지대의 뉴스와 음악에 할애하거나 때로는 광고를 케추아어로 방송하는 등 해안지대의 고산지대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Cotler 1994, 45). 또 다른 한편으로, 고산지대 출신의 이주민은 고유의 문화전통을 유지하는 한편, 도시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배우고, 도시의 생활 방식을 습득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혼합 정체성을 누전트는 출로 정체성(choledad), 즉 도시화된 원주민 정체성이라고 부른다(Nugent 1992). 결국 20세기 중반의 인구 범람 현상으로 리마는 안데스적 요소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고, 이주민 역시 새로운 도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페루 사회의 경제·사회적 계층 구조가 변화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문화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혼종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치차(chicha) 음악을 살펴보고자 한다.

치차 음악

치차(chicha)는 ‘옥수수’라는 의미의 파나마 원주민의 용어에서 기원했는데, 오늘날 페루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옥수수를 설탕물에 발효시켜 만든 주류 혹은 음료로, 실제로 페루에서는 옥수수뿐 아니라 오카, 유카, 땅콩, 퀴노아 등의 여러 가지 뿌리 식물이나 곡류를 설탕에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치차라고 부른다. 고대 잉카제국의 왕인 잉카는 이러한 치차를 태양의 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인 인티 라이미(Inti Raymi)에서 황금 잔에 담아 친척에게 대접하기도 했고,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할 때, 땅에 뿌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안데스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해안지대에서도 대중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치차이다(Quirós Sánchez). 두 번째는 안데스 고산지대의 이주민이 도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종의 도시 하위문화(즉 도시의 크리오요 문화와 고산지대의 안데스 문화가 혼합된 문화)를 치차 문화(cultura chicha)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차에 함축된 부정적이고 멸시적인 의미가 강조된 경우로, 선정적 보도를 위주로 하는 타블로이드판 일간지를 치차 언론(prensa chicha)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두 번째 의미에 집중하고자 한다.

치차 문화의 범주에서 가장 명백한 사례가 치차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명확하게 치차 음악은 안데스를 대표하는 음악인 우아이노(huayno 또는 huaino)와 해안 도시, 특히 리마의 크리오요 음악을 대표하는 콜롬비아 콤비아가 혼합된 형태의 음악, 즉 페루 콤비아 또는 안데스 콤비아를 일컫는다. 치차 음악의 기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페루 중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산지대, 해안지대, 밀림



가수 차칼론(출처: <http://cde.peru21.pe>)

지대를 이어주는 우안카요(Huancayo)에서 탄생했다고 본다. 특히 교통의 요지로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우안카요에서 데모니오스 델 만타로(Demonios del Mantaro)라는 그룹이 1966년 콜롬비아 콰비아와 안데스의 리듬을 조합해서 녹음한 「치체라」(La Chichera)라는 음반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치차 음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Gargurevich 2002). 60년대 형성되기 시작한 치차 음악은 주로 안데스 고산지대로부터 이주해 온 주민들과 자식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전성기를 맞이한 80년대에는 리마 중심가에서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치차 음악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는 이들로 가득할 정도로 인기를 구가했다. 이토록 치차 음악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당시 음악의 주요 소비층이던 이주민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차 음악의 주요 주제로는 농촌, 향수, 이주, 도시 노동, 빈곤, 마치스모, 음주, 투쟁, 사랑, 종교 등이 있었다(Hurtado Suárez 1997). 즉 이주민이 도시의 삶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면서도 이전의 안데스적 정체성도 함께 유지하지만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이나 안데스적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양자를 조화롭게 조합시켜 새로운 출로 정체성(choledad)을 형성 시켰듯, 대중문화에서도 기존의 콰비아에 안데스적인 우아이노를 조화시켜 또 다른

장르인 안데스 콤비아, 즉 치차 음악이라는 장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바일론은 치차 음악의 대표적인 가수인 차칼론(Chacalón)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어떻게 보면, 차칼론은 70년대 리마의 대중문화에서 새롭게 탄생한 장르의 결정판인 셈이다. 즉, 외형적으로 전혀 안데스 적이지 않은, 혹은 매우 서구적인, 의상을 입은 도시화된 안데스 고산지대 출신 가수인 것이다(Bailón 2004, 56).

즉,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도시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이전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고산지대 이주민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 것과 유사하게, 차칼론과 치차 음악 역시 처음에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서구의 문화를 차용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안데스의 음악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음악 장르로 발전한 것이다.

맺는말

본고에서는 리마라는 도시 공간이 어떻게 지리적 외연이 확장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역사·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혼합을 이루며 새로운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치차 음악의 형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페루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이분법적 인식이 주는 한계를 지적하고,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물론 크리오요적인 리마와 안데스적 고산지대라는 단절된 공간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는 지리적 거리와 함께 사회경제적, 인종적, 문화적 거리와도 복잡하게 얽혀 오늘날 여전히 페루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페루 문화에 접근하려면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lbo, X. 2004. "Ethnic Identity and Politics in the Central Andes: The Cases of Bolivia, Ecuador, and Peru", in Burt, J-M and Mauceri, P., *Politics in the Andes: Identity, Conflict, Reform*,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Bailón, Jaime. 2004, "La Chicha no muere ni se destruye, solo se transforma: vida, historia y milagros de la cumbia peruana," *ICONOS*, 18: 53-62.
- Burt, J-M. 2006. "Contesting the Terrain of Politics: State-Society Relations in Urban Peru, 1950-2000", in Drake, P. and Hershberg, E., *State and Society in Conflict: Comparative Perspectives on Andean Crises*.
- Cotler, J. 1978. *Clases, Estado y Nación en el Perú*, Lima: IEP
- Cotler, J. 1994. *Política y Sociedad en el Perú: cambios y continuidades*, Lima: IEP.
- Degregori, C. 1998. "Movimientos étnicos, democracia, y nación en Perú y Bolivia." in Dary, C., *La construcción de la nación y la representación ciudadana en México, Guatemala, Perú, Ecuador, y Bolivia*, Guatemala: FLACSO.
- Gargurevich, Juan. 2002. "La 'Chicha', cultura que resiste", Coloquio Panamericano: Industrias culturales y diálogo de las civilizaciones en las Américas, 22-24 April, Montreal.
- Hurtado Suárez, Wilfredo. 1997. "La música y los jóvenes de hoy: Los hijos de la chicha." En Carmen Rosa Balbi, ed. *Lima, Aspiraciones, reconocimiento y ciudadanía en los noventa*, Lima: Fondo Editorial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Kay, C. (1982), "Achievements and Contradictions of the Peruvian Agrarian Reform",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8(2):141-170.
- Matos Mar, J. 1984. *Desborde Popular y crisis del Estado. El nuevo rostro del Perú en la década de 1980*, Lima: IEP.
- Nugent, G. 1992. *La laberinto de la choledad*, Lima: Fundación Friedrich Ebert.
- Quirós Sánchez, Eduardo. "¿Prensa popular o prensa chicha?"
http://www.upao.edu.pe/WebArticulosDinamicos/Mantenimiento/DCTOS/ARTICULOS/PRENSA_POPULAR_O_PRENSA_CHICHA.pdf